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고액채납자 6940명 명단공개… 채납세금 4조4천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채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채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채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채납액은 기타 캠블링 및 베테업을 하는 임태규 씨(60세)로 1739억원을 채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채납해 법인 중 채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채납자가 줄면서 채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단체 3개도 명단공개됐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 신청 기한 '2년→5년으로 연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13일부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평균 44만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로, 지급액은 5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3만 가구, 지급액은 69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이날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통지한다.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계좌를 써넣은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물을 통해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추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